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 (Pergande))의 발생 밀도 변동 및 항온조건에서의 발육에 관한 연구

박창규, 엄기백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해충과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Pergande))의 온도에 따른 발육 및 비닐하우스 축성재배 오이(전남 구례)에서의 발생 밀도 변동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온도에 따른 꽃노랑총채벌레의 난부터 성충까지의 발육 기간을 조사한 결과 33℃에서 9.5일, 30℃ 9.5일, 28℃ 11.0일, 25℃ 11.9일, 23℃ 13.2일, 20℃ 17.2일, 18℃ 20. 8일, 15℃ 32.5일, 13℃ 42.2일이 소요되었다.
2. 난부터 성충이 되기까지 온도와 발육속도간의 직선회귀식은 $Y=0.0048x-0.0385(r^2=0.9895)$ 였으며 발육영점온도는 8.02℃, 발육에 필요한 유효적산온도는 208.7 온일도 였다.
3. 전남 구례지방의 축성재배 오이 농가에서 노란색 점착트랩을 이용한 발생밀도 변동을 조사한 결과 3월 초순에 밀도가 형성된 농가는 4월 중순이후에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5월 상순 밀도 형성 농가는 6월 상순 이후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4. 포장 2의 점착트랩에 채집된 성충의 성비는 0.1~0.8까지, 발생시기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었다.